



## 한국 5월 수출

당사 예상 부합; '26년 연간 수출 전망 33%에서 45%로 상향

- 글로벌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출 급증이 이어지는 가운데, 중동 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
- '26년 수출 전망 기존 33%에서 45%로 상향하며, 성장률도 2.7%에서 3.0%로 상향.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실질 소득(GDI) 8%, 명목 성장률은 15% 내외 전망

'26년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53.2%(877.5억 달러)로 당사(55.7%) 및 금융시장(50.7% Bloomberg 기준, 이하 전년 대비)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다. 일평균 수출은 조업 일수가 하루 감소하며 60.7%를 기록했다. 5월 한국 수출의 급증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(169.4%), 컴퓨터(주로 SSD, 290.7%) 등의 IT 수출의 급증, 석유(46.6%) 및 화학(11.1%) 제품의 단가 상승, 바이오헬스(5.2%), 화장품(24.2%) 등의 견고한 수요 증가 등에서 비롯되었다. 반면, 자동차(-5.9%) 및 부품(-2.0%), 철강(-2.1%), 일반기계(-6.3%) 등은 미국의 관세 부과, 중국과의 경쟁 확대, 전쟁에 따른 물류 비용 증가 등으로 부진을 지속했다.

한편, 당사는 '26년 연간 수출 전망을 기존 33%에서 45%로 상향 조정한다. 이는 반도체 수출 단가의 상승 폭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연간 반도체 수출이 160%에 이를 전망이고, 중동 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. 수출 전망의 상향을 감안하여, '26년 한국 GDP 성장 전망도 기존 2.7%에서 3.0%로 상향한다('27년 전망은 2.4%로 유지). 한편, 당사는 유례없는 주력 수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(terms of trade)의 급격한 개선으로, '26년 한국의 실질 소득(GDI) 증가율은 GDP를 상회하는 8%에 이르고, 명목 성장률은 15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. 이는 소비 및 재정 확대 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.

### 5월 한국 수출의 세 가지 특징

첫째, 반도체(169.4%, 디램 369.8% 낸드 206.8%), 컴퓨터(290.7%), 무선통신기기(12.6%), 디스플레이(9.4%) 등 IT 전 품목이 (+)를 기록했다. 특히, 올해 들어 일평균 반도체 수출 금액(10일 단위 집계 기준)은 계약 단가의 급등을 반영하여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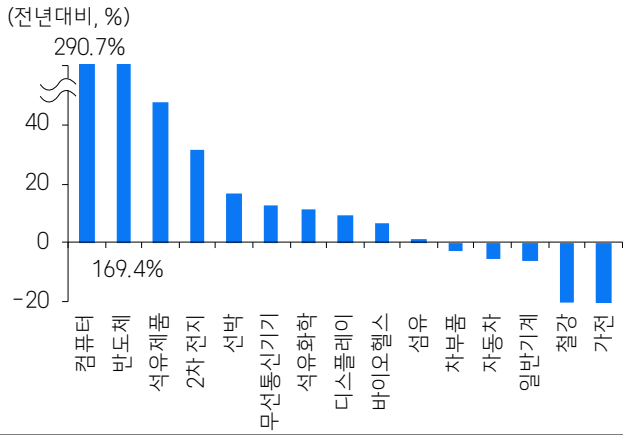
둘째, 자동차(-5.9%), 철강(-2.1%), 가전(-21.7%) 등은 부진을 지속했다. 반면, 석유(46.6%) 및 화학(11.1%)은 수출 통제, 국내 출하 우선 등으로 물량은 감소(휘발유 -31.1%, 경유 -24.3%, 화학 제품 -25.5%)했지만 수출 단가가 상승하며 (+)를 기록했다.

셋째, 지역별 수출에서는 중국(80.9%), 미국(59.1%), 아세안(58.4%) 등은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로 양호했다. 반면, EU(2.4%)는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, 중동(-7.7%)은 물류 차질로 부진했다.

### Compliance No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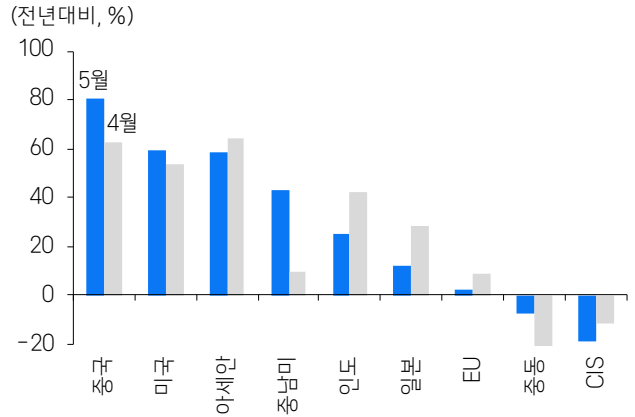
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5월 품목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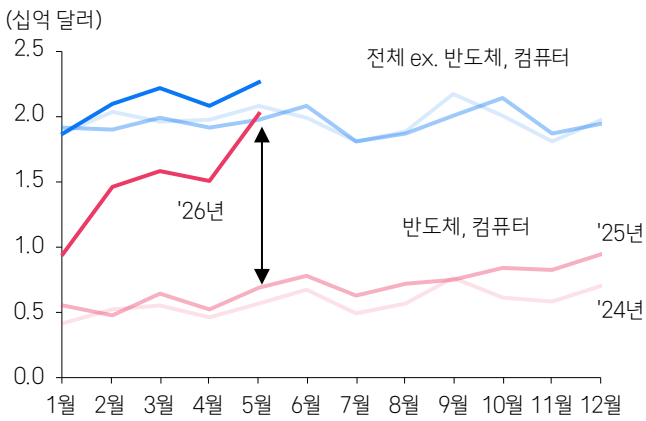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5월 지역별 수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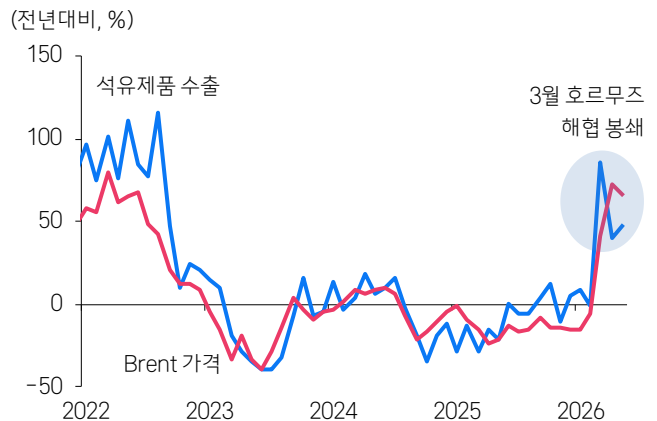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반도체와 컴퓨터가 대부분의 수출 증가를 설명



참고: 일평균 수출 추이  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삼성증권

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 제품 수출 증가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StLouisFed, 삼성증권

## 삼성증권

### 삼성증권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  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

Member of  
**Dow Jones  
Sustainability Indices**  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